

KEPCO E&C Family

2020 01+02

사람을 향한 기술! 행복한 에너지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사람, 환경, 기술 그리고 사람 **Engineering for Human**  **한국전력기술**

태양은 여전히 동쪽에서 떠오르지만
어느 사람에게 어떤 하루 해와 같고
해맞이 하는 이는 소망을 담는다
결국 절기와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이다

2020년 1,2월호

KEPCO E&C Family

통권 456호 2020년 01+02월호(격월간)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20년 1월 1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emolee7@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서울 보다 면적이 넓다는 김천에서
아무런 목적없이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가다보니
이미 문을 닫은 작은 역과 학교에 닿을 데가 있다

역이란 기차가 스쳐 지나가다 멈추고
사람이 내리는 곳이지만
철로만 보이고 역사는 달혀있고
역무원과 승객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더 이상 사람이 내릴 수 없는 역이
노을 빛에 비쳐 고요하다

이순신장군 동상 허리까지 자란 잡초가
무성한 ‘출입금지’의 교정 안을
교정 철문 사이로 들여다 본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재재거리며 뛰어들어갔을
교실의 창문 하나가 깨어져 있다
폐교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는 듯 적막하다

천년이라는 긴 세월도 아닌 백년이란
시간의 무게 속에서도 사물은 소멸한다
다만 사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정지한 채 그런 운명을 맞이한다
쓸쓸히 닫힌 문,
녹슨 자물쇠의 묵직한 정적으로.



04 K-Message

임원 새해인사

11 Focus News

2019년도 윤리경영 대상 수상
제14회 생태환경건축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9년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2년 연속 취득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종합 준공
신고리 5호기 원자로설치 기념행사
감사원 평가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상’수상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15 Brief News

벨기에 트랙터벨사와 MOU 체결
반부패 청렴캠페인 [부패 묻고 청렴으로 가!]
자매결연마을 에너지 복지사업 착공식 개최
2020년 감사계획 수립 워크숍 및 제3차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재능나눔미 봉사단, ‘2019 드림스타트 가족 명랑 운동회’ 참여
2019년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협력회사와 지식재산권 실시하여 협약식 열어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핵심기술 공동연구 협약 체결
원자력 공공기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2019년도 신입/경력사원 입사
2019년도 하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2020년도 시무식 개최



18 특별초대

안어병과 함께 빠져봅시다 - 개그맨 안상태 인터뷰

20 Shall We Meet?

안녕하세요. Gabor Salamon이라 합니다

22 가족탐방

에너지신사업본부 사업운영팀 설영철 차장 가족

26 팀워크 소개

원전O&M사업 안전평가분야

28 맛집여행

궁중비빔밥

30 포토에세이

제주의 풍광과 만나는 오름 여행

34 건강상식

겨울철 수족냉증 ‘속’부터 따뜻하게



36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경상북도 김천의 전통민속주 - 김천 명주 과하주

40 Culture

교양 <어떻게 의욕을 불태우는가> 외

42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2019년 동우회 추계문화행사 실시 외

43 이달의 한컷!

김장김치

44 English Class

쓸모있는 영어상식

45 사보기획이야기

사보를 기획하며

46 Safety Moment

썩은 사과

47 에코포토

겨울 선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자년, 새로운 전환기의 신성장 동력

친애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흰쥐의 풍요, 다산과 번영의 서기(瑞氣) 어린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도 상서롭다 기록한 해인만큼 그 기운이 한기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으로 풍성히 펼쳐지기 기원합니다. 멀리 UAE 바라카, 프랑스,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해외와 영광, 울진, 월성, 고리 등 국내 현장에서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는 한기와 협력사 직원 여러분께도 안전과 건강의 염원을 담은 새해 인사 드립니다.

지난 2019년 우리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개발과 국민 안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해였음에도, O&M, 신재생 등 성장·미래사업 중심의 사업개발을 통해 5,700여억원의 괄목할 수주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원자력본부가 O&M부문 연간 1,000억원대 수주를 달성하였고, 에너지신사업본부의 최근 5년내 최대실적인 1,137억원의 수주기록과 함께 원자로설계 개발단도 O&M, SMR 표준설계, 핵융합사업 진출 노력으로 수주원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유럽, 미주,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유수 기관과 에너지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세계화 기반도 착실히 다졌습니다. 사업중심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부제 조직 확대와 마케팅, R&D, ICT융복합 등 미래사업전략 기능도 새롭게 보강,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혹자 기조와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실재없이 달려온 지난 1년간 성과들은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협력하여 회사발전에 헌신해주신 노고가 없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기에 다시 한 번 임직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2020년에도 한기 도전과 성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영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세계 에너지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어 친환경 원전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초초임계압발전소와 같은 선진 화력발전의 역할 등이 재조명되고 한기의 설계기술은 이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한기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2020년을 희망의 시간으로, 100년 한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며 사업개발 성과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기의 주력사업인 원자력과 화력은 해외 수출로 성장기회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사우디, 체코 등 중동과 유럽에서 대형 원전수출 분위기가 고조되고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중소형 원전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랜트나 부유식플랜트 등 다양한 고객맞춤형 상품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며 한기는 ‘Team Korea’의 기술적 구심체로서 모든 기술 역량을 동원한다면 제2, 제3의 원전수출은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화력과 원자력, 신재생 등 한기 업무 전부문에서 독자적 해외진출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축적된 해외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완하고 다양한 해외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ROMM

사업 공동수주와 인력교류를 확대하여 해외시장의 지평을 넓혀 갑시다. 우리의 기술인력 수준을 세계 최고 에너지전문 엔지니어링기업 수준으로 높여 적어도 2030년까지 매출 50%를 해외에서 달성하도록 합시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신사업 및 융복합기술 접목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새해에 본격화될 제주해상풍력사업과 함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를 예상합니다. 이들 분야가 한기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사업수행은 물론 성능개선, 시운전, Owner's Engineering 등 사업생애주기 전 분야에 대한 확고한 경쟁력 확보는 필수입니다. 또한 이들 기술과 디지털 플랜트, 사이버보안, Industry 4.0 등 융복합기술 접목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무한한 잠재력을 보이는 분야로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영역입니다. 국가에너지안보에 기여해 온 우리 한기가 마땅히 기술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다양한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 해외기업과 인력교류를 확대해 한 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소명입니다.

셋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장 공기업으로 시장원리에 충실한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경영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새해부터 적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사적 차원의 의식과 시스템 혁신을 신속히 정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성 확보라는 공기업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인권경영 등은 전시효과

에서 탈피하여 한기의 특징점을 살려 상호간 혜택을 공유하는 실질적 성과창출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뢰의 노사관계, 화합과 소통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간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일과 삶의 조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며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이를 위하여 직종과 직급, 세대간 인식차와 문화적 괴리를 극복해야하며, 명령과 복종의 수직문화에서 상호배려와 존중의 수평문화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노사 양측 모두 일에 대한 의식,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혁신을 필요로 하며 신뢰의 노사관계, 화합과 소통의 조직문화로 다져진 직장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은 자율적이며 강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는 조직이 아니라 강한 경쟁을 주도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기는 이미 글로벌 경쟁 와중에서 어려운 경영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하나되는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장으로서 저는 회사 현안과 중요정책에 대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면서 상호협력하는 노사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기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 신뢰의 노사관계,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조직문화, 상호 존중하면서 한 발 더 다가서는 배려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협력하여 동참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020년, 한기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사장 이 배 수

소통과 배려의 한기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한기 가족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9년은 제가 한기 가족의 일원이 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한기가 직면한 에너지전환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통해 회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함께하고자 했던 동반의 한 해였습니다.

한기 가족 여러분!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취임 초기 저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 회사를 바라보았지만 힘든 경영환경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야근을 하고 불철주야 사업개발에 매진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러한 저의 생각이 기우였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 동안 직원 여러분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저는 2020년에 다음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소통과 배려입니다. 침묵은 범죄라는 말처럼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은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한마디 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상생입니다. 정부의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방이전 공기업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볼 시점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및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셋째는 변화입니다. 지금 한기는 세계적인 에너지 환경 변화의 파고를 최일선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궁(窮)하면 통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공정한 회사 문화 정착을 위해 변화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면 억새꽃은 휘날리던 날개를 잠시 감추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해가 비치면 억새꽃은 은빛 날개를 펼치고 모진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한기 가족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에게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 DNA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기가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를 통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한기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상임감사 정 일 순



희망을 품고 도약하는 2020년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기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경영관리본부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환경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기반을 재정비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체계 혁신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사업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조직과 인력, 예산 등 경영자원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제도 및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미래사업 중심 사업재편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영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출, 자금, 손익 등 기본적 재무관리 뿐만 아니라 적정수준 계약잔고 확보를 통해 안정적 경영 기반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정목표 설정과 효율적 지원, 성과보상 강화 등 전사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대외평가 성과 향상도 중요합니다. 우선 지난 평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집중 보완할 계획입니다. 불리한 계량지표를 개선하고 회사 본연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종합 고려한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연중 관리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회사는 IMF 7년 신규 인력수급 공백의 후유증으로 조직의 중추가 되는 책임급 중간계층이 취약해진 상태이며, 연간 100여명에 육박하는 경험인력이 정년퇴직하는 인력수급과 운영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력육성

과 체계적인 기술전수는 한기가 지속성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이지만 신규인력을 지속 보강할 것이며,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한기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체계를 고도화하고 경험기술전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근무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일과 삶이 조화로운 한기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끝으로 새해에 각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희망을 품고 선배·후배·동료를 바라보는 시선에 온기(溫氣)를 담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혼자 힘으로 이겨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겨울밤을 이겨내는 힘은 삭풍이 몰아치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도 곧 아침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마주잡은 손과 손으로 전해오는 작은 온기(溫氣)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리고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마음으로 맞잡은 손에 희망을 담고 도약하는 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2일
경영관리본부장 엄 호 섭



가슴 속 소망을 모아

2020년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자년은 흰색 쥐띠 해입니다. 쥐는 십이지 가운데 다산(多産)과 부지런함, 근검절약을 상징하며 따뜻한 가족애와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회사는 에너지 전환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 개척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바탕위에 혁신 성장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에 잘 대처하면서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쟁의 규칙이 바뀌는 지점, 즉 전략적 변곡점은 완만하게 도래되며 사전시그널을 동반한다고 하며, 기업들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기업은 쇠퇴하고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를 둘러싼 상황들을 유추해보면 원전르네상스가 한참일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전비리 사건, 에너지전환시대를 거치면서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올해가 우리 회사의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자력본부는 이러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시대에 바뀐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원전종합설계 역량을 넘어 원전O&M사업, 해외 사업, 신성장사업 및 디지털신사업 등을 미래사업으로 성장·발전시켜 지속적인 매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후관리사업은 정부 및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후속사업 수주와 기술개발 및 사업수행 역량 강화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세계적인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원전 고유 기술을 유지·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핵융합, 4차산업 등 미래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먹거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역량 확충으로 비단 한전기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지난 몇 십년간 같이 호흡해 온 우리의 협력사, 계약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원의 개인적 가치 제고와 자긍심 향상 및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회사생활, 조직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 및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자랑스런 한전기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안정화와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원자력본부 직원 모두가 즐겁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최근 회사는 국내신규 원전건설 분야와 해외신규 사업개발 분야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영환경 및 힘든 근무여건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노조위원장님 이하 집행부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올해에도 우리 회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에는 한기직원 모두의 가슴속에 담아 둔 소망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늘 활기차고 행복한 일터와 만복이 깃든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원자력본부장 진 태 은



청렴과 지혜로 소임을 다하며

사랑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하였던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지나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백색 쥐의 해로써 백색의 고결함과 쥐의 상징인 지혜와 충명을 생각해 보며, 직원 여러분 모두가 청렴과 지혜를 겸비한 인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9년을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안팎으로 한일, 미중 무역분쟁 등 국내·외 정세혼란과 세계 경제의 긴장상태 지속으로 인한 산업경제가 위축되고 저성장 시대에 돌입함에 있어 미래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에너지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우리 에너지신사업 본부는 시장에서의 많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에 더욱 매진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주력인 플랜트발전소 설계사업에서 나아가 발전소 컨설팅 사업, 발전플랜트 내진안전성 평가와 신재생 사업 등 다양한 사업개발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 왔습니다.

우리본부는 2019년에 1000억이 넘는 수주실적과 호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EPC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어 곧 계약이 체결될 것이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제주한림해상풍력 사업도 주기기 선정을 완료하고 본 궤도에 진입하여 본격 추진이 됩니다.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가 합심해서 이룬 성과로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연료전지·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기술개발에 적극 매진하여야 하며, 회사의 신성장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기는 회사 설립 이후 어려움을 주기적으로 경험하여 왔으며, 끊임없이 극복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맹자왈 생어우환 사어안락(生於優患 死於安樂) ‘걱정과 어렵고 근심스런 것이 나를 살게 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 한기 가족 모두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고민과 노력을 한다면 당면한 난관에 대해 돌파할 수 있으며 오히려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기 가족 여러분! 한기에는 지난 45년간 일구고 쌓아온 저력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소중한 여러분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다시 일깨워 모두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묵묵히 각자 맡은 소임을 훌륭히 수행한 직원 모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내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건강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2일
에너지신사업본부장 변 화 운

전승불복 응형무궁 (戰勝不復 應形無窮)의 2020년



2020년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의 경(庚)은 오행상 금(金), 색은 흰색이라 하며, 십이지에서 자(子)는 쥐니 흰쥐의 해이며 쥐는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쥐띠의 해를 희망과 기회의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흰쥐의 해를 맞이하여 한기가족 여러분분의 가정에 풍요와 사랑 그리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미중 무역 분쟁, 불안정한 외교문제 및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로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와 경제적 풍파에 휘말렸고, 에너지전환정책은 우리 회사에 신산(辛酸)의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영 상황을 모면한 것은 한기가족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 외에는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 회사에 우호적인 환경으로의 변화는 기대하기 쉽지 않아 여러분에게 배전의 노력을 당부해야 함이 참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난날을 돌아보면, 2009년 UAE 원전사업수주의 쾌거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을 이루었던 것은 우리 내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온실에 비견될 만큼 안락하고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기술자립·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큼을 부정할 수 없으나, 또 UAE 이후 해외 원전 수주가 전무한 사실과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에 자만하고 도취되어 온실 밖으로 나왔을 때를 대비한 보다 장기적이고 확고한 미래전략의 수립과 이에 따른 세계화의 노력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었다는 뼈아픈 자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전승불복 응형무궁(戰勝不復 應形無窮) 즉, 전쟁에서 승리는 반복되지 않으니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인 손자병법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2020년 새해를 출발하는 신발 끈을 동여매고자 합니다.

이 말은 ‘군대는 물을 닮아야한다’라는 병형상수(兵形象水)와 유사한 뜻이지만 이를 택한 것은 ‘전승불복’ 때문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승리’를 염두에 둔다면 아무리 순풍이라도 역경에 대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을 공고히 하여 핵융합발전 등 우리가 받을 디디지 않은 곳으로 우리의 업무영역을 넓히고 웨스팅하우스나 SNERDI 같은 세계 속의 우수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 및 관계 확대 등을 통해 세계화를 추진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새해 아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을 되새기며 탄탄한 비전을 가진 역동적인 한기, 세계로 뻗어나가는 희망찬 우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2020년 1월 2일
원자로설계개발단장 김 신 환

2019년도 윤리경영 대상 수상



한국전력기술은 11월 30일 한국윤리경영학회가 해마다 그 해 윤리경영에 가장 큰 의지와 노력을 보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2019년도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강하고 체계적인 윤리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임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회사,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윤리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등 윤리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전력기술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된 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모범적 윤리경영을 추구해 온 회사는 ‘청렴 ACADEMY 투어’와 ‘청렴 문화 확산 광역화 사업’ 등의 특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 성과를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나누려는 노력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배수 사장은 “임직원들이 강한 의지로 윤리경영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제14회 생태환경건축대상 최우수상 수상



다양한 친환경 녹색기술 적용과 자연 친화적 건물로서 우수성 인정

한국전력기술 사옥이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KIEAE)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후원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은 생태학적 건축 실현을 위하여 설계적, 시공적, 기술적, 정책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친환경성을 향상,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회사 사옥은 태양광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우수 및 중수도 설비 등 다양한 친환경 녹색기술과 진공삼중유리 적용, 생태조경 도입,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 건축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016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으며, 이어 올해 생태환경건축 최우수상을 이어 받았다.

회사는 수상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등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녹색경영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2019년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 인정

회사는 12월 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2019 지역사회 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인정패를 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제도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을 받은 기업·기관에게는 1년간 인정제 엠블럼 사용권한이 부여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보험 지원 및 컨설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배수 사장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성과는 한전기술이 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매진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2년 연속 취득



회사는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2년 연속 취득하였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 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제3자가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회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지정 36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인증을 취득하였다. 회사는 연속 취득 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인증심사 평가항목에서 인사혁신처의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구성된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시스템, 채용운영, 채용성과 등 3개 부분의 9개 평가항목과 59개 세부항목의 인증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인증은 그 동안 한국전력기술의 공정한 채용제도를 2년 연속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그 의미가 크다.

한국전력기술은 앞으로도 채용과정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으로 공정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종합 준공



신고리 3,4호기 종합준공 기념행사가 12월 6일 신고리 발전소 현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과,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이배수 사장을 비롯한 진태은 원자력본부장과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이 참석했다. 신고리 3,4호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1400MWe급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 최초 원전으로 UAE 수출원전의 참조 발전소이다.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폐쇄절차를 밟고 있는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24기 원전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신고리 3,4호기가 연간 208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국내 전체 발전량의 3.7%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한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였으며, 미국 NRC의 DC 취득을 통해 APR1400 노형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신고리 5호기 원자로설치 기념행사



11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서울 원자력본부 주관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서 신고리 5호기 원자로설치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하여 관련사 주요 임직원 등 15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전력기술 진태은 원자력본부장과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을 비롯한 사업책임자, 현장 소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원자로설치 기념테이프 커팅과 원자로 용기 서명행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원자로 설치의 전체 사업공정의 약 50% 시점에서 주요 구조물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기전공사에 착수하는 단계다. 전체 건설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이다. 원자로는 핵반응 발생 장치로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했다. 신고리 5호기는 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APR1400 노형으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국내외 선형 원전의 경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증진 대책과 최신 인허가 요건이 모두 반영되어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하였다. 신고리 5,6호기는 2019년 10월말 기준 종합 공정률이 51%로 5호기는 2023년 3월, 6호기는 2024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감사원 평가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상’수상



감사원 주관의 ‘2019년도 우수 자체감사활동 및 자체감사사상 포상’ 행사가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평가하여,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구 11개, 발전기구 7개 및 우수 자체감사사상 표창기구 12개 등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전력기술 감사실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우수한 활동을 인정받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기업 부분 발전기관상에 선정되어 감사원장으로부터 표창장과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감사실은 앞으로도 적극적 예방감사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임직원이 신뢰하는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미래지향적 환경·에너지분야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회사는 11월 22일 한국환경공단과 미래지향적 환경·에너지분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변화운 에너지사업본부장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최근 친환경과 신재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분야 경향에 발맞추어, 양사의 전문성에 기인한 협력체계 운영과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해외 바이오매스 발전, Waste to Energy 발전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주요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국내·외 협력사업의 성공적 공동개발과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정보 교류와 추진전략 수립, 환경기술 발전방안 등에 협력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전력기술의 풍부한 에너지분야 설계 경험 및 기술력,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친화 발전 경험과 전문성이 더해져 국내외 폐기물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발전 등 에너지와 환경을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발굴하고 양사의 상생발전과 더불어 글로벌 환경 개선, 자원효율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KEPCO E&C News

벨기에 트렉터벨사와 MOU 체결

12월 11일 한국전력기술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트렉터벨(Tractebel)사와 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배수 사장과 Tractebel사 볼게인 질(Bourgain Gilles) 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양사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저장 및 수소 에너지 등 에너지 사업분야 협력, ▷신규원전건설, 가동원전 엔지니어링, 원전해체, APR1000 EUR 인증, ▷인력교환 프로그램 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전력기술은 이번 MOU체결이 유럽 원전시장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부패 청렴캠페인 [부패 묻고 청렴으로 가!]

회사는 11일 오전 경북 김천구미 KTX역 일원에서 반부패 청렴실천 조직인 ‘청렴지킴이’를 중심으로 [부패 묻고 청렴으로 가!]라는 모토로 청렴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09일)’과 ‘제1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김천구미역을 이용하는 KTX와 SRT 고객과 김천혁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물티슈와 반부패 자식 홍보물을 배부하며 반부패의 날과 공익신고의 날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행사로 시행하였다.

자매결연마을 에너지 복지사업 착공식 개최

회사는 12월 5일 경북 김천 증산면 사무소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마을 에너지 복지사업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개월에 걸쳐 3개면(증산면, 대덕면, 부항면) 지역에 12kw규모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본업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한전기술은 낙후한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에 LED 전등 및 전기설비 교체 사업을 통해 전력효율 제고와 화재위험 저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감사계획 수립 워크숍 및 제3차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2020년 감사계획 수립 워크숍 및 제3차 감사자문위원회’가 11월 28일 김천본사 3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일순 상임감사를 비롯해서 감사자문위원 5명(이시백 전 감사원 과장, 박종훈 변호사,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 신봉기 경북대 교수, 정기태 회계사)과 감사실 직원 및 준감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KEPCO E&C News

재능나눔미 봉사단, ‘2019 드림스타트 가족 명랑 운동회’ 참여

재능나눔미 봉사단은 11월 28일 김천시가 주관한 ‘2019 드림스타트 가족 명랑운동회’에 참여하여 드림스타트센터 아동 및 가족을 위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였다. 회사는 드림스타트 소속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멘토링, 독서 지도, 문화 체험 등 격주 목요일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한국전력기술은 12월 30일 김천 본사 경영회의실에서 ‘2019년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혁신성과 공유를 위해 3대 혁신방향 8대 분야를 대상으로 혁신사례를 제출 받아 진행되었으며 50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다. 대상에는 경제활력지원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마을 에너지복지사업’이 수상하였다.



협력회사와 지식재산권 실시허여 협약식 열어

한국전력기술은 12월 30일 서울 오크우드호텔에서 진태은 원자력본부장과 5개 협력회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실시허여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기술이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3개 소프트웨어(EPAAD, PSDAP, SLEEVE PC)에 대하여 원자력 토목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5개 협력회사(경일엔지니어링, 도담이엔씨, 두우엔지니어링, 에스디이엔지, 세이스코리아)에 사용권을 2026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핵심기술 공동연구 협약 체결

한국전력기술은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유석재)와 12월 24일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진태은 원자력본부장 및 국가핵융합연구소 이현곤 부소장, 정기정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설치될 테스트 블랭킷 모듈(Test Blanket Module) 시스템 연구를 향후 6년간 공동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현곤 부소장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 외에도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계통 연구 등 융합로의 실증화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엔지니어링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원자력 공공기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기술은 12월 18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혁신적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자력 공공기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OIP)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원자력 공공기관 사내 벤처 활성화 지원, 원자력 분야 청년 취·창업 발굴 및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및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시설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9년도 신입/경력사원 입사

2019년도 신입/경력사원 입사식이 12월 16일 본사 1층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사는 지난 9월 25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통해 총 8,642명의 지원자 중 신입 77명, 경력 6명 등 총 83명을 채용하였다. 이번 채용에서는 지난해 인사혁신사례로 선정된 회사의 현장사전등록제를 계속해서 시행하였으며, 온라인 시면접을 도입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입사한 신입/경력사원들은 직무입문교육, OJT등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순 경 실무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회사는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도 하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12월 30일 경북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도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하였다. 정년퇴임을 하는 직원 24명을 비롯하여 경영진과 노동조합원,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퇴임 직원 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퇴임식은 정년퇴직자 동영상 상영, 공로패 증정, 이배수 사장과 하진수 노조위원장의 송별사, 퇴직직원 답사, 기념촬영의 식순으로 이어졌다.



2020년도 시무식 개최

2020년 1월 2일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경자년을 맞아 개최된 시무식에서 임직원 일동은 각자의 마음을 다잡고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맞아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신년사에서 이배수 사장은 “시시각각 변화해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기술 임직원들이 신성장동력 창출과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C**



안어빙과 함께 빠져 봅시다

개그맨 안상태 인터뷰



조금 흐트러진 양배추 파마머리, 검정색 뿔테 안경, 붉은색 체크 셔츠의 개그맨 안상태를 1층 로비에서 만났다. 어쩌면 이런 코디가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뭔가 남다른 인상과 포스를 느끼게 한다. 방문출입 카운터에서 경비 여직원들의 자지러진 웃음과 함께 싸인 요청, 사진 한 컷 부탁이 있었다. 11월 21일(목) ‘인권 Plus 문화제 콘서트’로 안상태를 초청하여 성희롱 예방콘서트, 인문학개그콘서트 공연하였고, 그 사이 막간을 빌어 4층 스튜디오 촬영실에서 그를 인터뷰하였다.

❶ 사람을 웃기게 하는 연기자로서 관객의 호응이 없다는 순간이 있을 터인데,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는가요?

▲ 네. 그럴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관객을 무대로 끌어와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죠. 저는 이때가 돌발 상황이라 판단하여 즉흥 연기로 위기를 모면하는 편입니다. 애드립이지요. 제가 히트시킨 “한 번 빠져 봅시다.”도 그런 과정 중에 나왔습니다. 관객의 포커스를 극적으로 전환하여 연기로 다시 집중하게 했지요. 그 유행어는 미리 연출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❷ 블랙코미디, 슬랩스틱코미디, 스탠딩 코미디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쪽이 어디입니까?

▲ 가장 적합한 장르라면 ‘시추에이션 드라마’ 쪽입니다. 잘 짜여진 각본과 상황에 따라 사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준비하여 대처하는 편이 좋습니다.

❸ 고향이 아산이라면 최양락, 이영자 씨와 친하시겠네요. 좋아하는 코미디언을 말씀해주세요.

▲ 가깝게 지냅니다. 국내의 유재석을 무척 좋아하고 짐 캐리, 로빈 윌리엄스 영화도 자주 봅니다.

❹ 개그와 코미디에서 정치, 종교, 직업, 성 등에 대한 소재 제한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나아져 규제가 풀리는 중인가요?

▲ 슬프게도 아닙니다. 예전보다 제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



니다. 담배 피우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나요? 담배의 연기만 나와도 안돼요. 또 웃으면서 관용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바랄 때도 대중의 반대를 만날 수도 있지요.

❶ 개그와 코미디가 예전처럼 인기가 있거나 화제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침체기라 할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소재거리, 방송편성,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유튜브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려가서요. 사실 볼거리와 소재가 그쪽이 무궁무진하잖아요.

❷ 연기활동도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업일 것 같은데, 어떻게 푸시나요?

▲ 네.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 집에서 조용히 맥주 2캔을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마감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해결에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헬스장에 나가거나 틈틈이 작품 활동으로 영화도 찍습니다. 이런 운동이나 취미를 삶의 일부로 만들어 순환하는 고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울과 스트레스 병에 걸려요.

❸ 지금은 1인 크리에이션 시대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유튜브 활동을 하십니까?



▲ 직업상 의사인 분이 나와 카메라 Unboxing 활동을 (신제품 포장을 풀어 이모저모 이야기나 정보를 주는 것) 자주 올리는데 인기가 무척 좋습니다. 저도 2~3개 정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 10만과 6만의 구독자와 조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레드 서어클’입니다. ‘Infotainment’라는 말은 정보와 재미를 결합한 것으로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개그맨과 코미디 지망생도 예전과 달리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출현 때문이지요. 창의성과 자체 제작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저도 Final Cut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단편영화를 7편 정도 감독하였고 그 중 ‘봉’과 ‘싱크로맨’이 인기가 좋습니다.

❹ 찰리 채플린은 음악 작곡, 서영춘은 가수로서 노래도 잘했습니다. 숨겨진 특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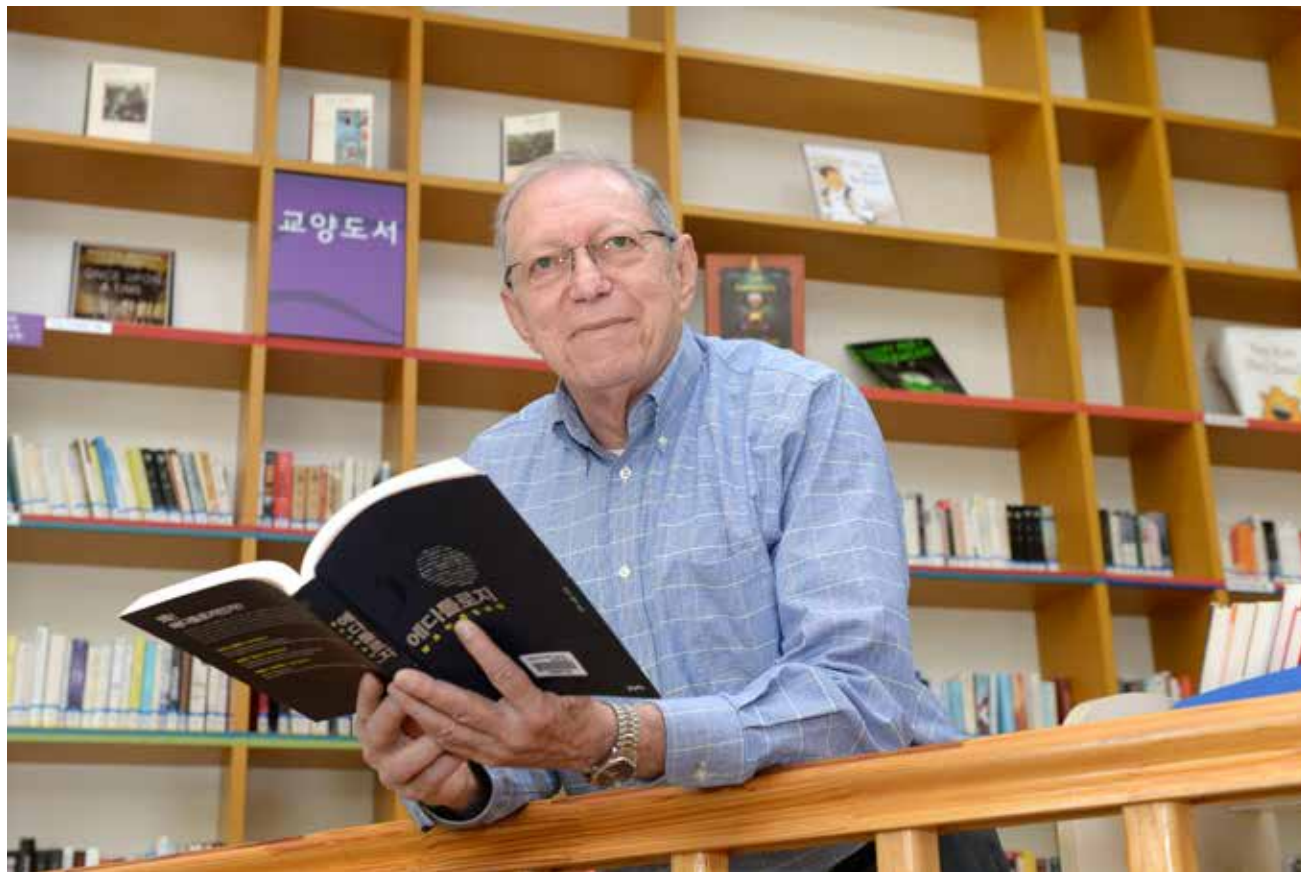
▲ 랩과 힙합을 잘 합니다. 문제는 요즘 랩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쏟아져 나와 자랑하기가 쑥스럽네요. 음악 쪽에 마음이 갑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직원에게 드리는 한 말씀을 요청하였다. “원자력, 수화력발전소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하는 공학자분들이 직원으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공학은 무엇보다 첫째와 마지막도 ‘정확성’입니다. 그걸 지켜내는 공적인 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없다면 공학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근무에 고통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분들 덕택에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셈이죠. 그래서 오직 감사할 뿐이고 또 그 사명감을 계속 지켜만 주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미 후배 연기자들과 기획실장님이 환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촉박한 인터뷰 진행을 마치고 총총 걸음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자, 얼핏 보면 열공하는 모범생 같기도 하고, 그 눈빛과 표정에는 천진한 개구쟁이의 모습이 섞여 있는 듯 하였다. 장난기가 스며있는 반짝이는 눈빛의 소유자이다. E&C



안녕하세요. Gabor Salamon이라 합니다.

한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Gabor Salamon 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도 “Gabor”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현재 원설단 UAE사업부에 NAWAH(나와) 소속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주로 바라 카원전 3,4의 FSAR와 운전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략 3년 정도 살았고 제가 누군지 궁금한 직원이 있어 잠시 소개 합니다.



194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 1956년 10살 무렵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세상에 나온 베이비 부머 세대이지요. 그 당시 헝가리에는 소련연방의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사회혁명이 있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하여 시청, 버스, 텔레비전, 비행기, 뉴욕의 마천루를 보고 놀라웠지요.

저는 영어를 빨리 습득하여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읽기, 듣기, 말하기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Florida)에 진학하여 원자력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한 학기는 수업 듣고 다른 학기는 회사에 취직하여 학비를 벌면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에서 일하면서 System 80, System 80+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전공분야는 원자로 노심 설계와 물리적 반응도 연구였습니다. UAE에서 근무할 때 라마단 기간이 오면 금요일과 주말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단식과 기도를 하더군요. 이슬람 종교에서는 하루에 5번씩 종교 의식을 치루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양념이 강한 음식에 적응하기가 어렵더군요. 한편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 친근하게 예의를 다하는 문화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서울 거리를 걸을 때 우산을 함께 써 자고 다가오는 아주머니,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KEPCO E&C의 근무환경은 건물, 사무실, 컴퓨터, 전산체계 등은 월드 클래스 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현대의 조직문화는 사일로 효과(Silo effect) 같은 게 있어 전문분야와 프로젝트에 따라 조직에 칸막이가 쳐집니다. 그래서 대화나 회의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요. 이런 점에서 사무실이 다소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 상사가 임원회의 같은 중요회의에 저를 참석을 시켰지요. 처음에는 회의에 나가 듣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의견과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태도를 바꿨습니다. 좋은 직장은 자유롭게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기 직원 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자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보고 있어요. 저의 경험상 한국 대통령 권한이 미국 쪽 보다 센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제약 받는 게 많아 약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취미는 골프와 재즈입니다. 서울에 “Once in a blue moon”이라는 재즈 카페가 있습니다. 재즈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다양한 레벨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기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즐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기 가족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Be strong and Open up”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인터뷰 취재는 11월 26일 ‘Holly’s coffee’에서 구술로 진행되었다. 역사, 종교, 정치, 원자력의 미래 등에 관한 다양한 대화를 가졌지만 지면사정으로 모두 담지 못하였다. E&C

에너지신사업본부 사업운영팀

설영철 차장 가족

성심당 빵을 사두고 센트럴 파크 아파트를 방문. 훈남 설영철 차장과 남색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의 부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TV 화면에서 ‘고독한 미식가’ 고로상이 화로구이 곱창을 먹고 있었고 보문산 자락이 보이는 집안은 정갈하고 아늑해 보였다.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다섯 살 인효가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형 인수는 학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엄마 신문에 나왔다.” 아니 어떤 기사로 벌써 신문에 실렸는가? 중도일보에 ‘책 따라 도서관 근처 이사 왔어요.’, 부제 ‘외국인 최초 수상자 아키나씨’ 공공도서관 도서관대출 최다 시민상장을 보여주었다. 얼마나 많은 책을 빌려 보았으면, 궁금증 폭발. 이때 장남 인수도 등장.

사진촬영 중 가만 보니 한일어가 섞여있다. 귀에 들려오는 일본 말. “스와레(앉아라), 코치코치(여기여기), 카메라 미떼고 란(카메라 보라니까), 마부시이(눈부셔, 플래시 조명 탓에). 움직이는 애들을 달래가며 한바탕 활극이 끝나고서야 어른들이 제정신이 돌아온다. 인수와 인효가 쫓르르 달려가 서가에서 동화책 두 권을 꺼내온다. <오시리 탄페이>, 번역된 <영덩이 탐정>, 양국에서 모두 인기 높은 책이란다.

옆에 설차장님이 번역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 순간 소설의 첫 문장으로 손꼽히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와 더불어 <설국>의 시작을 떠올렸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 섰다.” ‘국경’과 ‘설국’의 ‘국(國)’은 일본 고유개념으로 ‘나라’보다는 ‘지방’에 가깝다. 한국어로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사실상 없다.

드디어 와치아키나(和智明菜) 부인과의 만남에 관한 사연을 들었다. 아니 설차장이 알아서 실토해주었다는 쪽이 정확하다. 연애소사는 천기누설에 속하지만 간략히 정리하자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던 시절, 홈스테이를 함께했다. 그 시절 아내는 정말 예뻐했다는 설차장의 강력한 호소. 4주간 스위스-일본-한국 남자 셋의 구매 삼파전에서 최종 승리. 그 후 고달프고 기나긴 원거리 연애전선이 펼쳐졌다. 은유로 말하자면 어떤 ‘화학작용’ 내지 ‘전기’ 같은 게 있었냐고 물었더니 “확실히 그런 것은 있었죠.”라고 말을 흐리며 웃는 아키나 상. 전기공학 전문가 설차장의 맥스웰 방정식이 통했다. 달리 둘 사이에 전자기적 자장권(磁場圈)이 형성되었다.

한 가지 상식을 초월하는 면. 당시 영어도 서툴렀고 일어도 몰랐던 설차장이 호주에서 밤새도록 샤프 전자사전을 눌러가며 영어 문장을 만들고 외워 그 다음날 고백하는 날들이 이어졌다는 사실. 여심을 흔든 게 과연 언어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간절한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지극하면 통한다는 감동의 법칙이었을까,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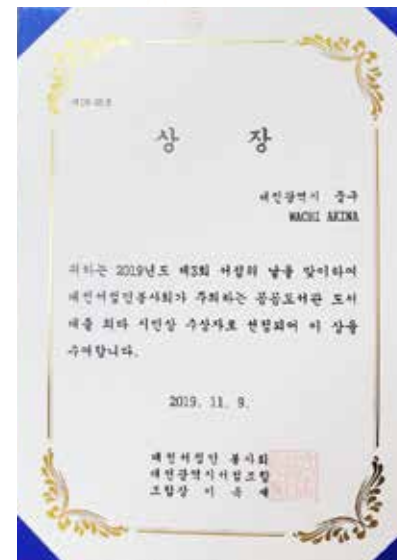
일본에 도착하면 원어민 수준으로 말한다는 인수와 무난히 소통한다는 인효는 장차



이중국어자가 될 것이다. 예전 식구끼리 영어로 말하는 직원 가족을 본 적이 있다. 어릴 적 자연스럽게 배우고 몸에 익히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다르게 사고하는 방식과 문화적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지금 인수와 인효는 일어로 꿈을 꾸고 있는 중일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두 나라 언어를 번갈아 가며 계속 읽어내기 바래본다. 아빠도 열심히 공부 중인데, 모르면 아내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는가 물었더니 묻고 답할 시간적 여유가 힘들다는 설차장 답변. 살림살이가 먼저!

부인은 조금 가냘프게 보이는 몸, 청바지와 짧은 커트머리는 얼핏 보면 수수해 보이는 데 계란형 얼굴에 이목구비가 오목조목 뚜렷해 보이고 선한 눈빛을 가졌다. ‘아름답다’와 ‘귀엽다’가 반반 섞인 절충형 미인이다. 한국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 키우는 환경은 선진국 같다고 말씀하신다. 문화동은 예전부터 각종 학원, 충남 대학병원, 한밭도서관, 백화점, 다운타운 인근으로 생활의 요람이었다. “앞으로 무얼 하고 싶습니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서글서글한 설차장도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아주는 아빠”라고 말하는 듯싶다. 두 사람이 묘하게 잘 어울린다. 가정적이라 할까, 생각과 가치관도 맞춤 세트 같다.

이름에 ‘가을 秋’를 쓰느냐 물었더니 ‘밝을 明’이라 한다. 그럼 ‘아까’라고 발음해야 할 것 같은데, 둘 다 가능한 소리라고 그런다. 한자이름의 발음은 자유식이란 걸 설명해주는 설차장. 그럼 아키나는 ‘밝은 유채꽃’이라는 뜻이 된다. 유성 갑천 부지에 노란 유채꽃이 환하게 무더기로 피어날 때 한 번 전화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소담한 행복, 순수한 기쁨이 환한 빛으로 유채꽃처럼 싱그러운 가정이 되기를 빌어 본다. 태권도 학원 잘 다녀라 인수야~~~ E&C



원전O&M사업 안전평가분야

원전O&M사업 안전평가분야는 3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기존 가동원전사업의 핵분야로 일컬어지던 조직인 안전분석팀, 방사선방호팀이 한 데 묶여 안전평가분야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안전평가분야의 주요 임무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분석업무(열수력, 화재위험도분석, 고에너지배관파단, 파단전누설분석, 침수분석 등등) 및 방사선방호설계업무(발전소 작업중사는 물론 발전소 주변 주민 및 환경에 대한 방사선방호 설계 총괄)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국내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회사 전체적으로는 먹거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안전평가분야 업무만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재확인 및 대국민 안전성 신뢰도 제고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업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제고라는 큰 파도를 묵묵히 헤쳐 나가 주고 있는 안전평가분야 구성원의 한마디씩을 들어본다.

<윤선홍부장>

원전O&M사업그룹의 안전평가분야는 신생팀이고, EGS를 맡고 있다. 그래서 거창한 구호 하나쯤은 필요해 보였다. 이 똑똑한 친구들을 안전평가분야로 뭉쳐 하나의 조직이 되기 위해. 하지만 기우였다. 약속도 다짐도 필요 없었다. 협력하고 유기적이다. 스스로 용화(蛹化)하고 우화(羽化)할 줄 아는 아름다운 전문가들이다. 다짐해 본다. 오늘도 열심히. 보기만 해도 즐거운 이들과 함께.

<문선창부장>

안전평가분야에서 열수력분야를 맡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공기업 아니고선 한 회사에서 나만큼 오래 다닌 친구가 없어 오랜 기간 내 가족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

록 해준 회사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

이제 입사하는 친구들이 어느덧 우리 큰애 나이랑 같아지도록 나이가 들었지만, 늘 배움의 자세로 운동도 열심히 하며 젊은 몸과 마음으로 후배사원들과 즐겁게 생활하길 기원해본다.

<홍성철과장>

안전평가분야 방사선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팀 내에서 성철스님으로 불리운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량을 묵묵히 소화해 나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딸을 가진 딸 바보이며, 딸을 위하여 업무는 많지만 칼 퇴근을 위해 항상 노력 중이다.

<이호상과장>

안전평가분야에서 성철스님과 방사선방호업무를 맡고 있다. 국내 가동원전에서 벌어지는 방사선방호설계 관련한 업무를 돌이서 꾸려나가기란 너무나도 벅차다 생각하지만 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나를 의미도 있다. 2019년이 지나고 2020년도에는 부디 업무량이 줄어들기를 기원한다.

<윤미연과장>

안전평가분야에서 화재 다중오작동분석 및 EQ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상보다 사번이 올드하다. 입사하고 한 우물만 파다 이 팀에 와서 다른 분석업무를 강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어 행복하다. 일생일대의 소원은 로또에 당첨되어 장거리 출퇴근의 종지부를 찍는 것인데, 웬지 정년퇴직할 각이다.

<박창선대리>

안전평가분야에서 인위적재해평가, 파단전누설평가, 고에너지배관파단 및 부격실가압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입사 9년차로 팀에서 딱 중간 위치에 있다. 가동원전사업에 와서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도 다양한 안전평가업무를 새롭게 맡으면서 신입사



원의 마음으로 공부하며 일하고 있다. 안전평가분야의 미드필더로서 경험치 만렙의 엔지니어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상진대리>

안전평가분야에서 침수, PT, 동하중 등 단기간에 다양한 종목을 새로 접하다 보니 역량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가 많다. 2년간 파견되어 근무하다 이번에 정식으로 부서 이동이 된 만큼 더 노력하며 배워나가겠다.

<남기주대리>

안전평가분야에서 DBA수소제어, 열수력 및 화재재해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타 분야 영역을 넘나드는 역무에 어려움과 보람을 같이 느끼고 있다. 매년 발전하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종택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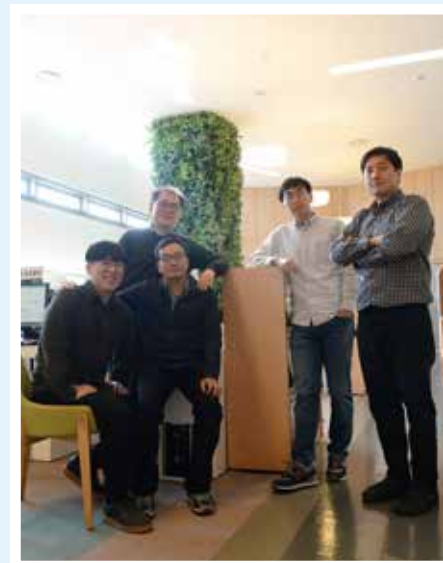
원자력발전소는 3만 개가 넘는 부품과 설비로 이루어진 기술의 집약체이다.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설계자료를 활용해 검토, 분석하고 발전소의 설비들을 실사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고된 과정이지만 웬지 가슴 한편을 뜨겁게 한다. 앞으로도 보다 완벽한 업무 이행을 위해 절차를 준수하며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준식사원>

안전평가분야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팀원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더욱 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식사원>

팀원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즐거운 회사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입사 5개월차 신입이다. 아직은 업무를 배워가는 단계이기에 약간은 서툴고 어설피다. 하지만 언젠가는 안평분야의 여전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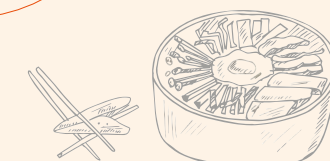


궁중비빔밥

유명 맛집 보다 새로운 메뉴를 발굴하기 위해 웹에서 검색, ‘궁중비빔밥’을 찾았다. 관련 블로그 글들도 탐독하였다. 무엇보다 ‘궁중’이라는 앞머리에 어떤 비빔밥일까 호기심도 작용했다. 시청을 지나 어모면과 김천공단 방향으로 3분 정도 지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



탐색전이기에 궁중비빔밥, 고등어구이, 고등어조림 정식 3세트를 주문하였다. 궁중비빔밥은 반쪽 고등어구이와 함께 나왔다. 생선 비린내를 잡기 위해 허브가루를 뿌려 초록빛이 햇빛에 반짝인다. 외견상 여타 비빔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라지와 고사리나물은 듬뿍 들었다. 고등어구이와 조림을 시키면 육개장이 따라 나온다. 고등어조림은 무를 크게 썰어 넣고 적당히 조렸다. 가격은 세트 당 일 만원 켜. 김구이가 포함된 밑반찬 6종은 다소 적어보이고 반찬 식감은 조금 아쉽다. 그 대신 누룽지 국물이 큼직하게 나왔다. 2~3 인이 식사한다면 종류 별로 주문하여 나눠 먹으면 구색이 맞을까. 식혜는 식후 셀프 서비스로 제공한다. 3세트 요리의 맛 평가를 하자면 구성은 무난한 편이고 중급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



궁중 치림성			
식 사	결합이	특별메뉴	주 류
궁 중 비빔 밥 10,000	계 절 피 절 5,000	달 여 채 볶 음 향 30,000	소 주 4,000
비빔 밥 7,000	제 육 볶 음 15,000	복 살 김 치 려 30,000	맥 주 4,000
고 등 어 조 림 정 식 10,000	대 20,000	옛 날 식 소 물 고 기 30,000	막 걸 리 3,000
고 등 어 구 이 정 식 10,000		수 육 15,000	청 화 5,000
궁 기 밥 1,000		대 20,000	설 중 배 10,000
		쇠 고 기 구 이 - 잇 가	복 분 자 12,000
		돼 지 고 기 (살 껍 살 화 ~)	올 로 수 1,500

식당 사장님께 몇 가지 여쭙어보았다. 동일 상호가 전국에 산재해 있지만 궁중비빔밥은 체인점이 아니라는 설명. ‘궁중’이 들어간 이유를 물었더니, 개업한 지 3개월 갓 지났고 궁중비빔밥을 처음 구상할 때 재료와 요리를 새롭게 가져가려고 했지만 아직 주방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재료, 요리, 가격 구성 맞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개

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식당은 깨끗하고 정갈하다. 사장님에게 주 요리와 더불어 감자전, 해물파전 같은 게 곁들여지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우리 집에도 있어요. 메뉴판에 ‘계절찌찌미’라고 적혀 있잖아요. 배추와 정구지(부추)를 계절 따라 내어 놓아요.” 아뿔싸 경상도 말을 그만 간과해 버렸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비빔밥, 된장찌개, 떡국은 국민음식이 반면 이를 다루는 식당이 보기 드문 편이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하였고 계절 찌찌미는 다음에 시식해 보기로 약속. E&C



제주의 풍광과 만나는 오름여행



제주도는 독특한 풍경을 가진 곳이다.

사면의 맑고 푸른 바다와 중산간의 울창한 산림, 길과 마을의 운치도 그렇지만

제주가 더 특별한 것은 화산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지형과 지질이다. 이러한 제주도를 가장 오롯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름에 올라 바라보는 풍광이다. 제주 곳곳에 퍼져있는 오름은 자그마한 기생화산을 이르며 그 수가 무려 360여 개에 이른다.



01 작은 다랑쉬라는 뜻을 가진 아끈다랑쉬. 멀리 성산일출봉과 우도의 모습이 보인다 02 오름길에 보이는 제주 들녘 풍광 03 너른 초지와 삼나무 숲을 지나 오르는 물영아리 오름



오늘날 제주도의 모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120만 년 전부터 2만5천 년 전까지 적어도 네 단계의 화산 활동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제주도 지형이 만들어진 것은 제4기 화산 활동기로, 제3기 한라산이 솟은 이후 계속된 후화산 활동 시기에 해당한다. 연대로는 10만 년 전에서 2만5천 년 전까지이며,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 수많은 기생화산, 즉 오름이다. 오름은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다. 오름에 기대어 밭을 일구고 목축 생활을 하였으며, 신앙의 터자리로 신성시하는 한편, 죽어서는 오름 주위에 뼈를 묻었다. 오름에 오르면 제주가 보이고 제주 사람들의 삶이 보인다. 오름을 올라보지 않고서 제주를 보았다고 말하지 말자. 풍광 좋은 제주의 오름을 세 곳을 소개해본다.

동부의 너른 풍광을 만나고 싶다면 다랑쉬 오름

제주의 동쪽 구좌읍 송당리와 세화리에 걸쳐 자리한 오름이다. 오름들이 대체로 경사도가 있는데다 다랑쉬 오름은 해발 382m로 동부의 오름 중 높은 오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은근히 다리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라서 보면 풍광이 가히 압권이다. 동쪽으로 작은 다랑쉬라는 뜻의 아끈다랑쉬와 그 너머 은월봉, 두산봉, 멀리 성산일출봉이 이어지고, 바다 건너 멀리 우도봉까지 시야가 트인다. 일출 무렵이면 장엄함이 엿혀져 더 감동적이고, 동쪽뿐만 아니라 사방 풍광이 다 좋다.

수많은 제주의 오름들 중 딱 한 곳만 올라야 한다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정상에 분화구는 다른 오름들이 대체적으로 비대칭인데 비해 동그랗게 움푹 패여있다. 전설에 의하면 봉우리가 너무 도드라져서 설문대 할망이 주먹으로 탁 쳤다는 전설이 있다. 분화구의 주변에는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나무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다. 가을에는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주변의 용늪이 오름도 여행객이 많이 찾는 오름 중의 하나다.

람사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오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자리하고 있다. 수망리는 오래전부터 소와 말을 키우던 마을이었다. 그래서 주변의 소몰이 길이라는 오름 둘레길도 생겼다. 초입부터 너른 초지가 눈을 시원하게 한다. 이 초지에는 자주 노루가죽이 나타나 눈을 즐겁게 한다. 초지 울타리를 끼고 오름 앞에 이르면 울창한 삼나무와 편백나무 숲사이로 길이 이어지는데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전해진다.

오름으로 오르는 길은 두 갈래다. 오름 둘레길을 따라 능선으로 서서히 오르는 길과 급경사의 계단길이다. 체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물영아리 오름 정상부는 둘레 300여 m, 깊이 40여m의 아담한 함지박 형태의 분화구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는 우기가 아니어서 물이 고여있지 않지만, 물장군,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물영아리 오름은 람사습지로 지정되어있다. 람사습지는 전 세계의 습지 중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들을 지정하여 보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2곳이 람사습지로 지정되어있다.



거미다리를 닮은 동검은이 오름

제주의 오름들은 생성원인은 같아도 저마다의 특성과 형태를 지니고 있다. 구좌읍 종달리에 자리한 동검은이 오름은 3개의 분화구와 4개의 봉우리가 연결된 보기 드문 복합 오름이라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독특한 오름으로 알려져 있다.

길게 이어진 봉우리들의 형태가 옆에서 보면 마치 다리를 짝 핀 거미를 닮았다고 해서 거미오름이라고도 불리는데 서쪽 조천읍 선흘리의 거문오름과 구분하기 위해 동검은이 오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정상부에는 길폭이 1m 정도의 능선길이 이어지고 사면이 가팔라 아슬아슬하지만 오르고 내리는 재미가 있고 풍광 또한 다랑쉬 오름과 비슷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동부의 대표적 오름이다. 표고는 해발340m로 다랑쉬보다 낮지만 오르는 길이 가파르다. 동검은이 오름 서쪽 높은 오름 사이에는 억새밭 지대가 펼쳐져 사진찍기에 좋다.

사려니숲길과 붉은 오름

흙이 붉어서 이름이 붙여진 붉은 오름은 제주도 안에 네 개나 된다. 그중 가장 대중적

04 물영아리 초지에서 만나 노루가족 05 풀밭으로 덮인 새별오름과 제주의 무덤 06 오름길의 편백 숲과 검은 돌담 07 겨울에도 푸릇한 제주의 숲



인 붉은 오름은 표선면 남조로 중산간 지대에 자리한 곳이다. 이곳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나 단체 여행객들이 방문하기에 좋다. 오름 바로 앞에 자연휴양림이 자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사려니숲길이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려니숲길은 조천읍 교래리에서 남원을 한남리까지 이어지는 약 15km의 숲길을 이룬다. 전형적인 온대성 산지에 해당하는 숲길 양쪽을 따라 졸참나무, 서어나무, 때죽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 있는데, 드라이브 코스로도 트레킹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제주시가 선정한 제주의 숨은 비경 31경 중 하나이다. 숲길에서 붉은 오름으로 오르는 길은 두 갈래다. 1118번 도로 붉은 오름 입구에서 오르는 길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서 오르는 길이다. 후자를 추천한다. 걷기 편한 데크 길과 정갈한 삼나무 숲이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오름 정상부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있고, 전망대에 오르면 동쪽으로 제주 동부의 너른 풍광과 서쪽으로 한라산의 능선 을 감상할 수 있다. 휴양림 입장료는 1,000 원이다.

서쪽의 외로운 별, 새별오름

새별오름은 애월읍 봉성리 서부 중산간 지대에 자리한 오름이다. 저녁 하늘에 뜬 외로운 셋별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이 오름은 결코 외롭지 않다. 매년 정월대보름 제주 들불축제가 열리는 곳이고, 등성이에 너른 억새밭이 자리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부의 대표적인 오름이기 때문이다.

완곡하게 펼쳐진 능선이 푸근하고 정상에 오르면 동쪽엔 한라산,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해안과 푸른바다 그 너머로 비양도까지 시선이 닿는다. 해발 높이는 519m지만 출발지 역시 높아 실제 오름의 높이는 115m 정도다. 보드라운 초지로 30분 정도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정상인 남봉을 정점으로 남서,북서,북동 방향으로 등성이가 있으며, 등성이마다 봉우리가 있다. 서쪽은 삼태기 모양으로 열려있고 북쪽은 말발굽 모양으로 우묵하게 파여있으며, 별표처럼 둥근 5개의 봉우리가 형성되어있다. 제주 서남쪽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며 일몰 시간대에 맞춰 오르면 더없이 좋다. 한편 이곳은 고려말 최영 장군이 목호의 난을 평정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수월하게 오르는 아부오름과 군산오름

경사진 오름을 오르기 힘들다면 구좌읍 송당리의 아부오름을 추천한다. 천백도로 건영목장 안에 위치해있으며, 단순한 형태의 원형분화구로 이루어져 있다. 바닥 둘레는 500m, 높이는 약 50m이며 전 사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분화구 안에는 삼나무 군락이 둥그렇게 줄지어 심어져 색다른 풍광을 보여준다. 서귀포 안덕면에 자리한 군산오름은 차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주차 후 10분만 걸으면 정상이다. 단 길이 외길이고 좁아서 운전엔 조심해야 한다. 정상에 오르면 산방산과 중문, 남쪽 바다가 아득히 펼쳐진다. 분화구는 없지만 일몰이 특히 아름다운 곳이니 시간에 맞춰 오르길 추천한다. **E&C**



겨울철 수족냉증 ‘속’부터 따뜻하게

주부 이모씨는 겨울철만 되면 유독 손발이 차가워 고생한다.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따뜻한 실내에 들어와도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밤에도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하자 결국 병원을 찾았고 ‘수족냉증’ 진단을 받았다.

추운 날씨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추위와 상관없는 온도에서도 손발 시림을 느낀다면 수족냉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수족냉증은 추운 날씨에 더해져 심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냉증이란 손과 발이 차다고 느끼는 증상을 말하며, 기온이 낮은 얇은 계절이나 상황인데도 손발이 차가워 고통을 받는다. 때에 따라서는 손발 저림, 소화불량, 생리불순, 생리통 등 또 다른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소화기가 만성적으로 약하면서 손발이 찬 경우다.

한방에서는 이를 비주사말(脾主四末)이라고 해 소화기가 손발을 주관한다고 본다. 일상생활에서 관찰하면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손발이 따뜻한 경우가 많다. 출다기도 밥을 먹고 나면 추위가 덜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소화기에서 팔다리로 기혈을 보내주지 못해 손발이 찬 경우에는 소화기를 보강하면 손발이 따뜻해질 수 있다.

둘째, 자궁이 약하면 손발이 찬 수 있다.

자궁이 약한 경우에는 아랫배와 손발이 차고 생리통, 생리불순, 난임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소화기를 아궁이에 걸린 솥으로 비유한다면, 자궁은 아궁이의 밀불과 같다. 밀불이 약하면 솥의 밥이 잘 안 되고(소화불량), 방이 춥기 마련이다(냉증). 자궁을 따뜻하게 하면 소화기질환과 냉증까지 치료 가능하다.

셋째, 기혈허약인 경우에도 냉증에 걸릴 수 있다.

소화기와 자궁에는 이상이 없는데 손발이 차다면, 평소 무리한 활동이나 피곤한 상태에 처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 몸의 기혈은 내부 주요 장기에 영양을 우선 공급하므로, 상대적으로 손발은 차가워진다. 이런 경우 기혈을 보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상열하한의 경우가 있다.

상열하한은 상체에 열이 몰리는 것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화가 머리 위로 올라가면 피와 열도 함께 위로 몰리게 되며 손발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며 냉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머리 위로 몰린 열을 내려 줘야 비로소 손발이 따뜻해진다.

마지막으로 양기부족이 냉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온기인 양기가 부족하게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설사나 성 기능 저하와 함께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다. 이 경우 한약과 온향요법 등 보양해 주는 치료가 도움이 된다.

수족냉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손과 발뿐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반신욕이 도움이 된다.

손발은 오장육부와 연관이 깊어 따뜻하게 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진다. 또, 수시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생강차는 겨울이면 손발이 차거나 속이 차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좋다. 당귀차는 각종 부인병에 좋은 한방차로 냉증과 생리불순 등에 좋아 꾸준히 마시면 수족냉증을 개선할 수 있다. 운동도 중요하다. 꾸준히 걷고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과 함께 몸의 온도를 높여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원인에 따라 침, 한약, 뜸을 이용한 한방치료로 체질을 개선하고 원인에 따른 근본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자궁과 소화기, 생식기 등 복부를 중심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온향치료, 약찜, 좌훈 등의 다양한 치료로 수족냉증 치료에 효과를 준다. **ES.C**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시리즈를 시작하며

술은 오래된 역사적 산물입니다. 우리 술에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카스가 포도주 만드는 법을 전했다고 하고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가 보리로 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 콘텐츠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시리즈를 시작하는 배경은 지방이전에 따라 경북지역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그 지역 특산물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 만나게 되는 우리 술은 알고 마시면 그 효용성이 매우 크고 해당지역특성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시리즈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나아가 전국 규모로 임직원이 참여하는 우리회사 사보의 특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꾸며 가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의 전통민속주 김천 명주 과하주



김천 과하주는 조선초기부터 만들어져 오던 명맥이 일제말기에 끊겼다가 지역 유지들의 노력으로 50여년 만에 1983년 송강호(식품명인 제17호)에 의해 경북무형문화재 제11호(1987년)로 재현된 경상북도 김천의 전통주다.

김천 과하주는 과하천의 샘물과 토종찹쌀, 엄선한 곡자를 사용 전통 비법으로 저온 장기 발효 숙성된 전통 민속명주로 손에 묻어면 끈적끈적할 정도로 진기가 있는 술이고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가 가미되지 않아 숙취가 없다고 한다. 투명한 황갈색으로 독특한 향과 약간의 감미와 산미를 갖는 부드러운 맛의 민속주로 알려져 있다.

18세기 초반 편찬된 지역향토지 ‘금릉승람’에 따르면 과하주는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져 궁중공물로 진상되기도 하였고 사대부 집안의 귀빈접대용 술이라고도 전해진다, 투명한 황갈색의 16도(약주 발효주)와 23도(기타주 증류주)가 있는데 이 중 약주는 토종찹쌀을 장기 저온발효를 시켜 내린 후 일정기간 저온숙성으로 기타주는 토종맵쌀을 장기 저온발 효를 시켜 내린 약주와 맵쌀을 발효시켜 내린 증류주를 혼합하여 장기간 재숙성하여 만든다.

과하주는 정월 대보름 새벽 과하천 샘물을 길어 찹쌀을 고슬 고슬 찐 다음 누룩을 반반 섞어 반죽하고 그것으로 떡을 만



들고 술독에 넣어 밀봉 한 달에서 석 달간 저온발효하 여 걸러낸다. 이때 물을 넣지 않는다고 한다. 술을 빚는 시기는 음력으로 우수와 경칩사 이다.

그런데 한자로 과하는 “여름을 넘긴다”는 뜻인 과하주는 김천에서만 빚은 것은 아니고 옛 문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술 중의 하나로 조선팔도에 보편적인 술이었고 우리 술의 종류가 아니라 제조방법으로 나뉘는 술이다.

이 술에 과하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여름이라는 계절 때문이다. 우리 술은 통상 탁주 약주 증류소주의 세가지로 분류

된다. 가장 보편적인 약주는 알코올도수가 15% 내외로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변질되기 쉬워 빚거나 마시기가 어려운 술이다. 대신 알코올도수가 40%가 넘는 증류소주는 알코올도수가 높아서 퇴계 이항이 여름에 소주 마시다 죽는 사람 이 늘어나 걱정하는 글이 있을 정도로 여름에 마시다가 죽기도 하였단다.

이렇다 보니 약주와 소주를 대신할 술을 찾다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과하주다. 이 대목에서 조상들의 지혜가 빛난다 약주와 소주를 섞어 과하주를 만든 것이다. 백세주나 오십세주의 원조인 셈이다. 금빛 샘물에서 쏟아난 정갈한 물로 술을 빚었으니 그 술은 여름이 지나도 그 맛이 변치 않았다.

과하주 제조방법은 두 가지이다. 약주에 소주를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물대신 소주로 고두밥과 누룩을 버무려 발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만드는 과하주는 조선팔도에서 만들었는데 그 중 김천 과하주가 가장 유명했다고 한다.

과하주는 이순신 장군도 마셨다. 선조 27년(1594년 7월 27일) 난중일기를 살펴보면 “호리고 바람이 불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머리를 풀고 크게 울었다. 좋은 징조라고 한다. 이날 충청수사 순천과 함께 수루에 올라 활을 쏘았다. 충청수사가





과하주를 가져 왔다. 몸이 불편해서 조금 마셨는데도 몸이 좋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김천은 예로부터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이라고 한다 세 개의 산이 둘러싸고 그 안으로 두 갈래 물이 흐르는 형세에서 따온 말이다. 삼산(三山)은 김천을 둘러싼 황악산, 금오산, 대덕산을 가리키고 이수(二水)는 직지천과 감천이다. 직지천이란 이름은 김천의 유명한 절 직지사 경내를 흘러 나와 불여진 이름이고 감천은 감천(甘川)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물맛이 달다는 뜻에서 불여진 이름이다 감천뿐 아니라 직지천도 그 물맛이 좋아 김천 사람들이 직지사 에 물을 받으러 갈 정도라고 한다.

김천지역 향토지에 따르면 정작 조선시대부터 맛있다고 소문난 물은 따로 있었다 김천시 남산동 243번지에 있는 금지천이다 금이 나는 샘이라는 뜻으로 김천이라는 지명이 여기에서 나왔다.

“김천은 옛날 소관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옛부터 금이나는 샘이 있든 까닭으로 금천이라 이름합니다. 그 샘물로 술을 빚으면 그 맛과 향기가 극히 아름다왔으며 또한 그 샘을 주천이라 하였으나 이 지방의 사람들이 금을 채굴하는 고역을 두려워하여 그 샘물을 매립한바 오히려 이제는 그 장소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금릉승람 1702년)

과하주는 420여년전(1592년)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이여송 장군이 이곳 김천 지방을 지나다 우연히 이 지방의 샘물 맛을 보고 중국의 금릉에 있는 과하천 샘물 맛과 같다 하여 그 후 이 샘물을 과하천(무형문화재 자료 제228호)이라 하였고 이 샘물로 빚은 술을 과하주라 하였는데 이제 과하천 샘물은 오염되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옛날 이곳에 샘이 있어 그 샘물로 술을 빚으면 술맛이 그럴 수 없고 향기가 좋았다 한다. 그 샘물을 「금지천」 또는 「주천」이라 불러 왔는데 김천은 그 샘으로부터 연유된 이름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병장인 이여송이 이곳을 지날 때 그 샘물맛을 보고서는 중국 금릉의 과하천의 물맛과 같다고 칭송하여 이때부터 이 샘을 과하천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샘물로 빚은 술을 과하주라 하였다. 그 후 과하주가 서울에까지 알려져 임금님께 공물로 전해졌다. 과하주는 그 당시부터 이 고장의 전통명주로 전래 되어, 해방전 일본에까지 널리 알려진 이 지방의 특산물이되었다.(금릉향토사 1969년)

김천 과하주는 일제시대 김천주조(김천시 감호동) 정문앞에서 의료사업을 개업하고 40여년간 의료와 문화사업을 해오던 송재성씨(식품명인 제8호, 1995년)가 본도가 (김천주조)에서 배운 과하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전통 특산물의 명맥을 이어 보려는 뜻에서 1982년부터 당시 과하주 기능보유자 조무성씨(원보유자 권응칠씨)와 양조법을 복원하고 관련자료를 학계 권위자들의 고증으로 복원 전수하게 되었다.

현재 경북 김천시 대항면 과방령로 1178-4에 제조장을 건립하여 송재성씨의 이남인 송강호씨가 이 후계자로 지정되어 과하주의 기능전수와 지역민속명주로 김천 과하주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제조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직지사 가는 길 복천교 지나 향천이란 마을에서 야트막한 언덕길에 김천 과하주 도가가 있다. 오른쪽에 푸른 기암 왼쪽 편으로 삼분만 차로 올라가면 직지사 사찰에 닿는다. 그날 겨울 찬바람에 대숲이 일렁거리며 잎사귀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도가 어깨 쪽에는 단장한 분묘가 햇살을 가득 받고 있었다.

우리회사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김천 과하주 공장은 700평 규모로 공장 가동율은 명절에는 70% 평일에는 30% 정도로 소량 생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1일 생산량은 350병 규모다.

여기저기 급수 파이프와 온도계 달린 아래에 대형철제 발효탱크가 보인다. 아무래도 익거나 삭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큰 생선 가시 뼈를 구불구불 휘어 하프처럼 생긴 철제기구가 탱크에 달렸다. 발효 시 탱크에 온도가 올라 적절한 발효가 안 될 경우 거기에 차가운 물을 부어 온도를 낮추어 준다고 설명한다. 일종의 수냉쿨러다.

농염하게 발효되는 탱크 하나에서는 황갈색과 회백색 뒤섞인 걸쭉한 막걸리같은 술청 냄새가 코끝으로 흡입된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조그만 소용돌이가 여기저기 보인다.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기포때문인 것 같다. 표면 위에 크고 작은 동심원이 생겨났다 사라진다. 지금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물이 술로 변하는 기적.

드디어 완성된 과하주 한 잔 시음이다. 첫 빚깔이 우린 녹차를 대하는 듯하다. 술잔은 연둣빛 혼곤한 녹색으로 물들어 있다. 왜 이런 빛을 띄우는 걸까. 먼저 향을 맡아본다. 알코올이 후각세포 뒤에서 꽃잎처럼 활짝 피어나 떠돈다. 눈을 감으면 버 위로 반짝이는 햇빛, 농가의 밥 짓는 연기, 누룩의 작은 공장 굴뚝에서 풍풍풍 새어 나오는 가스 그런 환경들이 스쳐 지나간다. 혀끝에서 가벼운 쓴맛, 아련한 단맛이 감돈다. 목젖을 타고 흐르는 따뜻한 술기운에 사르르 몸이 녹는 듯한 느낌이 든다. 호젓한 숲길을 걸어가는 듯, 푸른 물결의 망망대해에 한점 기포가 되어 떠도는 듯 이상한 공허감과 행복한 체념 속에 그윽 하게 젖는다. 살짝 향기로운 감칠맛이다. 과하주 한 잔 술은 세상의 근심이 문밖 가득하여도 마음은 산중

에 남아 햇빛과 바람 속에 휘날리며 걱정을 사위게 하는 힘이 있다.

홍보팀 방문 당시 현 기능보유자인 식품명인 송강호씨는 만나 볼 수 없었으나 공장장을 맡고 있는 김형창 과장(T.054-436-4461~2)의 친절한 설명과 시음기회가 있었다. 우리회사 임직원들이 걸쳐데이 행사 등이 사전 연락 후 방문을 환영한다고 한다. [E&C](#)



알아 봅시다 : 제조방법에 따른 술의 구분

- ▲양조주: 효모를 사용하여 녹말 당질원료 등을 당화 발효시켜 주정을 만든 것, 청주, 맥주, 포도주, 중국 곡주 라오주(老酒) 등이 있고 알코올 도수는 3-18%다.
- ▲증류주(Spirits) : 곡물 과일 당분 등 원료를 발효시켜 주정을 만들어 증류기로 증류시킨 것, 위스키(보리 옥수수 호밀), 브랜디(포도 사과), 진(곡류), 보드카(곡류), 럼(사탕수수), 증류식, 소주(고구마 쌀), 기장주(쌀), 고량주(고량) 등이다. 알코올 도수는 37 - 60% 다.
- ▲혼성주(Liqueur): 증류주나 양조주에 초근목피 약초나 향료 과일 등을 담가 그 향기를 술에 옮기고 당분을 가한 것, 레몬·버무스 페퍼민트 바이올렛 카카오 체리 홍매화 벚 살구 녹차 꿀 등이 첨가된 리큐르는 알코올 도수가 68%까지 높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20-30% 다.

참고자료 / 도움주신 분

경북문화컨텐츠진흥원 발간 경북 BEST스토리텔링 지원DB 이야기 흐르는 땅 2권 김천편 / 김천 과하주 식품명인 송강호 김형창 공장장

교양

어떻게 의욕을 불태우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 한국경제신문사



교세라를 창업 하고 일본항공을 기 사회생시킨 경영의 신에게 노하우를 듣는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는 교세라, KDDI, 일본항공을 경영하면서 위기와 난국을 돌파했던 경험을 통해 직원들의 열의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에게 있어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능력이 뛰어난 인재도 높은 기술력도 많은 자본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의식개혁’이다. 왜냐하면 경영자 혼자서는 개혁도 혁신도 발전도 이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 하나하나가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하도록 회사의 경영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학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소설집 / 창비



이삼십대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8편의 단편소설. 생생한 직장인의 모습을 그려냄과 동시에 일상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반짝이는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담아내었다. 눈물짓되 사회에 매몰되어 가라앉지 않고, 힘에 부치지만 자기 나름의 지혜로 잘 버텨나가며, 어떻게든 삶의 희극을 써내려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책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작가는 기민한 시각으로 발견해낸 이 사회의 단면들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그려낸다. 더없이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의 모습을 긍정하고 응원해주기도 하면서도 말이다.

교양

인물로 읽는 현대한국정치사상의 흐름

강정인, 권도력, 김대영, 서희정, 양윤모 외 5명 저/ 아카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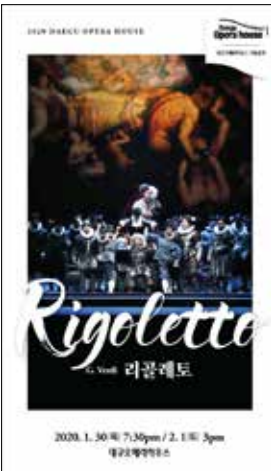


1945년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흐름을 각 시대와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을 통해 설명한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국 현대 사상의 흐름과 맥락을 평이한 문체와 쉬운 서술로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족국가, 근대화, 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각 문제에 있어 충돌하고 대립하는 김구와 이승만 등 17명의 인물을 통해 한국 정치의 주요한 사상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사상의 큰 세조류인 보수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를 대표하는 각 인물들 통해 사상의 뿌리에서 부터 여기서 뻗어나가는 줄기와 흐름을 찾아가며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공연

베르디의 <리골레토> 대구오페라하우스 신년 오페라

2020. 1. 30(목) 7:30pm | 2.1(토) 3pm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리골레토>는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와 함께 주세페 베르디 중기의 3대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문제작 『왕의 환락』을 원작으로 귀족들의 방탕함과 부도덕한 모습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광고음악으로 우리의 귀에 익숙한 ‘여자의 마음’이 경쾌하고 매력적인 음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음악을 통한 인간의 깊은 내면에 대한 감정표현이 극치를 보여주는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가 1월 30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막을 올린다.

전시

모네에서 세잔까지 : 국립이스라엘 미술관 인상파 걸작展

2020년 1월 17일 ~ 2020년 4월 19일 / 한가람미술관



<모네에서 세잔까지:국립이스라엘 미술관 인상파 걸작展>은 기존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유럽미술관들의 소장품이 아닌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인 국립 이스라엘 미술관이 소장한 19세기 인상주의 미술전시이다. 이 전시는 바르비종파 아티스트의 외광파 시작부터 후기 인상파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사조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일본 판화와 비교하여 주제를 살펴본다. 드가, 모네, 르누아르부터 폴 세잔에 이르기까지 인상주의와 후기인상주의 대표작들을 아우르며 모네의 역대작 ‘수련’의 공개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연

꽃의 비밀

2019년 12월 21일 ~ 2020년 3월 1일 /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모두가 열광한 코미디천재 장진의 화제작! 언론과 관객의 연이은 호평, 끊임없는 상황 코미디의 연속, 기대를 살짝 벗어나며 웃게만드는 대사, 캐릭터의 깊숙한 내면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장진’식 코미디가 다시 돌아왔다! 묘하게 끌리는 수상한 그들의 등장, 20만 유로 보험금을 위한 발칙한 작전이 시작된다. 축구에 환장한 남편들을 모두 축구장으로 보내고, 네 명의 여자들끼리 즐기는 송년회 날, 각자의 남편으로 변장할 수 밖에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축제

태백산눈축제

2020년 1월 10일 ~ 2020년 1월 19일 | 태백산국립공원



추워서 더 재미난 곳 태백산 눈축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시원의 도시이자 무구한 역사성과 고원지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 ‘태백’에서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대형눈조각 전시, 미니이글루 체럼, 눈사람 만들기 체험, 소망우체통, 즉석사진 출력 이벤트에 키즈 실내 놀이터까지 다양한 전시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스탬프 미션 수행을 통한 기념품은 덤. 재미와 감동, 즐거움이 있는 태백산 눈축제에서 겨울의 기쁨을 누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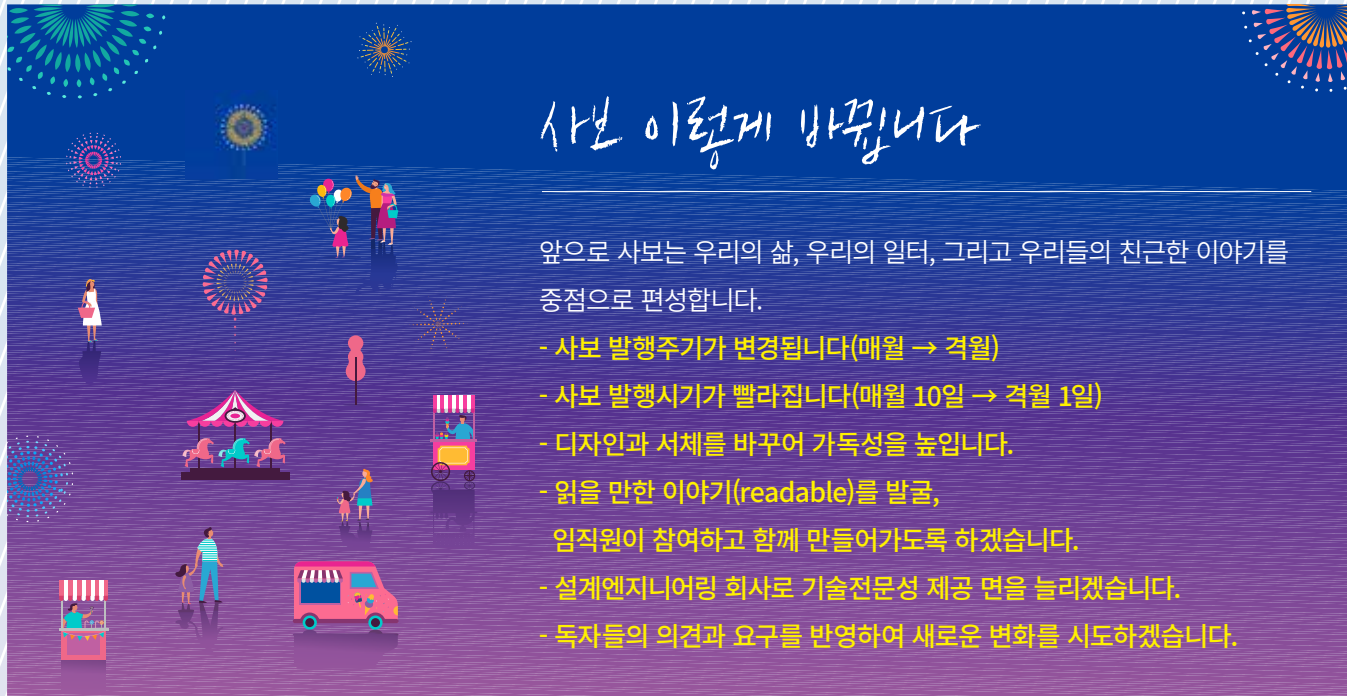
영화

남산의 부장들

2019년 1월 개봉예정



<내부자들>, <마약왕>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이 또 다시 시대고발 작품을 가지고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남산의 부장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는 10. 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 40일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10.26 사건을 중심으로 권력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파헤친다.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김성진 연기파 배우로 이루어진 화려한 배우진은 이미 크랭크인 당시부터 화제였다.



사보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사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들의 친근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 사보 발행주기가 변경됩니다(매월 → 격월)
- 사보 발행시기가 빨라집니다(매월 10일 → 격월 1일)
- 디자인과 서체를 바꾸어 가독성을 높입니다.
- 읽을 만한 이야기(readable)를 발굴, 임직원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설계엔지니어링 회사로 기술전문성 제공 면을 늘리겠습니다.
- 독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동우회 동정

2019년 동우회 추계문화행사 실시



한전기술 동우회는 추계문화행사로 11월 12일 여의도 한강유람선 투어를 하였다. 11시 30부터 시작된 당일 행사는 11시 30분 선상에서 점심식사 후 1시부터 항해를 시작하였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국회의사당 뒤편에서 끝나는 짧은 코스로 많은 동우회 회원들이 아쉬움을 표했지만, 선상에서 바라보는 여의도의 모습과 주변경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어느 외국에 못지 않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 다는 후문이다. 참석인원은 총 32명이었으며, 황성연, 김병걸 회원이 주변경치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누구든지 감상이 가능하다.

한기동우회 창립제30주년 자축연 행사 마칩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기동우회 30주년 행사가 11월 25일 개최되었다. 30주년을 기념 하기 위해 동우회 고문, 자문위원, 이사진, 씨클 회장단을 초대하여 선정릉역 수담한식당에서 조출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사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3개의 본부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후원을 하였다. 1989년 11월 25일 삼성동 한전기술(주) 강당 에서 발기인 30명이 모여 창립한 한기동우회는 현재 정회원 630명, 준회원 217명을 포함한 총 847명의 큰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앞으로도 한기 동우회의 새로운 30년을

기대하며, 모든 동우회원들이 서로 친목을 다지며 바람직한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한기 동우회의 발전을 기원한다.

하얀 배추속에 붉은 양념이 버물어지고
그 공간 사이 함박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11월 20일 평화시장에서 지역 상인회 봉사단과 함께 참사랑봉사 활동으로 김장김치 나누기를 하였다. 김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평화시장에서 구매하고 김장김치 500포기를 김천 취약계층 100가구에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 이배수 사장과 임직원 50여명이 한마음으로 소매를 걷고 동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이웃돕기를 하였다.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memolee7@kepcor-enc.com으로 메일 주시면 선착순에 따라 3명에게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쓸모 있는 영어상식

Summer, Camera

‘Summer’에 대해 ‘섬머’와 ‘서머’ 둘 중 어느 쪽이 영어에 가까울까?라는 논란이 많다. ‘섬머 페스티벌’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기에 ‘섬머’가 맞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음절(syllable)이란 소리마디, 소리경계이다. 음절을 찾아보면 ‘Sum-er’로 되어있다. 기본소리는 ‘섬머’이지만 재빨리 말하면 ‘서머’처럼 된다. 덧붙여 ‘S’음가는 우리말 ‘ㅅ’ 보다 ‘ㅆ’에 가깝기에 ‘섬머’가 적합하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Summer kisses, Winter tears”노래를 부를 때, 자세히 들어보면 ‘섬머’라고 소리 낸다. 음절 상 ‘Lemon’도 ‘레몬’ 보다 ‘렘언’이고, ‘Camera’도 ‘카메라’보다 ‘캠어러’로 된다. 음절을 알면 ‘기본소리’를 가늠할 수 있다. 본래소리가 들리고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런 소리를 낼 수 있다. 철자가 긴 부사에서 음절을 알아야 어떻게 소리 내는지 알 수 있다.

연습) Summer(섬머), Lemon(렘언), Camera(캠어러), Animal(앤어멀), Family(팸얼리)
Absolutely(앱설룰얼리), immediately(이미뤼얼리) Fortunately(포얼쳐널리)

“You got busted : 딱 걸렸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You got busted.” 라는 대화를 간혹 듣는다.

“불잡혔다”는 뜻이지만 우리말 “딱 걸렸어!”에 보다 가깝다.

‘Bust’ 동사는 ‘Break, Catch, Arrest’ 같은 뜻이 있다. 우리말 ‘박살내다’에 상응한다. “Ghost Buster”라는 영화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유령 때려잡는 사람”이란 뜻이다. 무언가 몰래 일을 꾸미다 갑작스레 들통 나는 상황에서 “You got busted!”는 “야 너 꼼짝 마. 딱 걸렸어”라는 어감을 가진다. 원어민은 이런 상황을 좀 더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속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피 묻은 손”, “쿠키 항아리에 집어넣는 손”을 상상하면 그림이 그려진다.

He got busted

= He got caught with red handed.

= He got caught with his hand in the cookie jar. 



독자와의 수다 사보 뒷풀이

요즘 세간에서 유튜브, SNS, 스마트 앱 영향으로 사보가 ‘기로에 섰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들을 수 있습니다. TV 방송국과 신문사도 흔들린다는데 ‘오죽하면’. 여러 이유로 인해 사보 외주화가 가속화 되어 외부 콘텐츠가 증가하여 사보가 직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약순환이지요.

이번 1월,2월호에는 기획, 취재, 작성한 사내 콘텐츠 분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직원에게 몇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개그맨 안상태 씨는 숙달된 인터뷰 실력으로 정해진 페르소나만 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투사’와 ‘전이’라는 실체화를 유명인들에게 찾기 어렵지요. 그래서 보통사람들 인터뷰가 더 흥미롭습니다. 미국인 Gabor와 설명철 차장 가족을 인터뷰를 하면서 ‘아직 쓰여 지지 않는 책’을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풀어 놓는다면 1인1권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예정된 인터뷰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사보기획을 맡으신 한호경 부장님이 퇴직하셨습니다. 선배의 축적된 경험을 물려받지도 못하고.....“사보는 문헌적 사료(史料)이다”는 말을 새겨 봅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편집팀 끼리 “독촉하지 맙시다.”는 말에 농담으로 “서로 목 조르면서 쾌감을 가지자!”고 응수했는데 무엇이든 시간에 쫓깁니다. 사보를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 늘 촉박해집니다.

사보에 실리는 삽화 하나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양화 작품 활동을 평생 한 친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스케치 북 한 권을 업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금속공예와 전통 염색을 하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도 연락해 보아야겠습니다. ^^; 절기와 축제가 사라지면 사회와 인간은 무기력해집니다. 추석, 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차츰 행방불명 중 입니다. 유럽과 일본만 하더라도 자생적 축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축제가 없어지면 사람은 우중충해지고 잿빛으로 바뀝니다. 성탄절 카드와 캐럴 송이 그리워집니다.

돌발퀴즈

회사는 ○○○○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강하고 체계적 ○○○○ 시스템을 갖추어 다양한 윤리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2019년 11월 30일 ○○○○대상을 수상하였다.

응모방법

2020년 1월1일~1월 30일까지
이메일주소로(memolee7@kepc0-enc.com) 응모,
정답을 맞춘 선착순 3인에게 도서문화상품권 2만원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의견

사보 기사의 주제, 아이디어, 디자인,
그리고 잘못 기재된 내용과 정보를
‘바로 잡아주세요’ 등의 여러 의견을
편집팀(memolee7@kepc0-enc.com)에
알려주세요.

사고가 날 때마다 인재(人災)라는 뉴스가 늘 따라온다.
관계자가 나와 사고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5년, 10년 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다.



- 1) 상자 안에 사과가 들어 있다.
- 2) 일부 사과가 썩었다.
- 3) 썩은 사과만 들어내면 좋아진다.
- 4) 상자 안의 나머지 사과는 어떻게 되나?

“썩은 사과의 비유”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사고가 유발된 그 항목만 수정하면 괜찮다는 그릇된 믿음에서 나왔다. 그 대처와 해결 방법이 간단하고 효과는 즉각적이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상자 안의 나머지 사과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사고원인을 탐색하고 방지하려면 상자 전체의 상황을 조사하여 차근차근 위험요소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오랜 기간과 끈기가 필요하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원적 해결은 모호한 조건, 숨겨진 원인을 모두 찾아내어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식이다.
사고수습도 관행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전체적 해결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상자 안에 썩은 사과 몇 알을 발견하고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사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가?
상자 밖과 안, 상자, 사과 모든 제반 요소를 두루두루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전문화의 접근법이다.
썩은 사과만 들어내지 말고 나머지 사과도 안전한가 고민하자! 

겨울 선물

겨울을 맞이하는 생명들은 매서운 추위와 바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앞으로 가는길에 잠시 쉬었다가 가기도 하지만 충전의 시간도 갖습니다
힘들여 키워도 살지 못하는 것들을 겨울은 매섭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봄의 색깔과 여름의 푸르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겨울이 한 계절 준비하는 것이 고작 매서운 추위와 바람만이 아닙니다
봄여름가을의 풍요를 만들기 위한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처 부장